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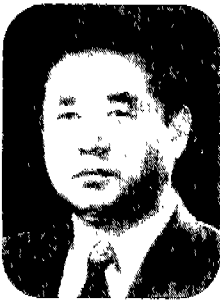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력기술인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해준 전력기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출발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의 극대화가 무엇보다 강하게 요구되기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력기술인에 새로운 비전 제시할 터



권 용 득 회장

우리 전력기술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합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날의 한국전력기술인 협회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은 전력기술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력기술인 모두는 국내의 전기산업발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과 희생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력산업의 질을 향상시켜왔으며, 산업현장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물론이고, 이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일조하였다고 자부합니다.

크고 작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츠려야 했던 시절도 있었고, IMF라는 외압에 정들었던 직장에서 밀려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였습니다. 그 시련은 우리 전력기술인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음을 자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력기술인 모두의 땀과 노력의

새로운 천년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테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발전에서 안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산업으로 구조의 개편이 이뤄질 것입니다.

결과입니다.

이러한 역경 극복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20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 천년은 디지털 문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사고와 가치창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요구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전기안전을 책임지는 전력기술인들 스스로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환경과 안전'이라는 테마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력기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성장 위주의 발전에서 안전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산업으로 구조의 개편이 이뤄질 것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러한 시대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력기술인 모두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새 천년의 희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 시절을 잊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데 모든 노력을 결집시킬 것입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 모두 협회와 함께 2000년 새해를 도전과 희망을 꿈꾸는 전력기술인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과 희망'은 역경을 극복할 의지가 있을 때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력기술인 여러분과 함께 새 천년의 희망을 열어가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 천년을 시작하는 원년(元年)에도 사업번창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00. 1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회장 권 용 득